

쌀의 날... 과잉재고 해소 '앞장'

도-전북농협, 전주한옥마을 일원서 쌀의 날 기념행사... 상생협약 체결과 함께 쌀 소비 확대 호소

전북도(도지사 김관영)와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제8회 쌀의 날을 기념해 전북 쌀을 소비하는 모든분들에게 복과 기쁨 좋은 일이 생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은 '쌀이 들어오면 복이 들어온다'를 주제로 2022년 쌀의 날 기념행사를 18일 풍남문 광장 및 한옥마을 일원에서 개최했다.

8월 18일은 쌀의 날로 쌀(米)을 분해하면 八·十·八이라는 의미와 함께, 한 톨의 쌀을 얻기 위해서는 농부의 손길이 여든여덟 번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 전북여성단체협의회, 고향주부모임전북도지회 등 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이들은 전북 쌀 소비촉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행사는 3개의 복(福)이 담긴 바트르기를 시작으로 풍물패 공연과 함께 경기전 문화광장으로 이동하면서 한옥마을 관광객에게 쌀을 무료로 나누며 쌀 소비 확대를 적극 호소했다.

한편, 전북도와 전북농협은 지속적으로 하락 중인 쌀값 회복과 쌀 과잉 재고를 해소하고자 소비 촉진 운동을 다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하루 두개는 밥심으로 라는 주제로 도청사에서 쌀 나눔행사 전북공무원노동조합과 쌀 팔아주기 운동을 진행했다. 고교생을 대상으로 아침 밥먹기 행사도 추진했다.



전북도와 전북농협은 2022년 쌀의 날 기념행사를 18일 풍남문 광장 및 한옥마을 일원에서 개최했다. 사진은 정재호 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쌀 소비촉진 상생협력 체결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재호 본부장은 "식습관 변화로 인한 쌀 소비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 전북농협은 하루 두 개는 밥심으로'를 캐치프레이즈로 다양한 쌀 소비확대 운동을 진행 중이다"라며 "이번 행사로 전북 도민이 8월 18일을 쌀의 날로 기억하고 쌀의

가치와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느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1달에 쌀을 2포씩 3개월간 구매하자'는 의미의 '쌀 소비 ①·②·③ 운동'을 도·시·군·도내 공공기관 등이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맛있는 밥·돈육 '한자리에'

전북농협, 신동진쌀·참예우 믿음진 우리포크 오늘 오후 라이브커머스 통해 할인판매 실시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이 건강한 땅과 물, 풍부한 햇빛에서 자란 품질 좋은 전북 신동진 쌀과 참예우 믿음진 우리포크를 19일 오후 3시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할인판매를 실시한다.

8월 들어 3번째로 실시되는 이날 방송은 쌀 생산량 증가 및 소비감소로 인한 판매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 중인 전북쌀 특판전으로, 전북쌀과 함께 전북에서 가공, 판매되는 믿음진 우리포크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지난 5일과 12일 판매에 이어 이번에도 판매되는 쌀은 신동진 품종으로 밥알이 다른 품종보다 1.3배 정도 커 식감이 좋으며 전라북도 대표쌀로 알려져 있다. 같이 판매하는 믿음진 우리포크는 정육과 지방층이 적당한 두께로 층을 이루고 있어 비타민B(토코페롤) 함량이 풍부하고 육질이 연하고 부드러우며 씹는 식감이 좋고 요리할 때 돈육 특유의 냄새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방송은 네이버 쇼퍼라이브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당일 오전 9시부터 24시까지 할인된 가격에 무료배송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정재호 본부장은 "밥맛 좋고 품질 좋은 전북쌀을 많은 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들도록 하겠다"며 "전북농협은 쌀값 하락으로 한숨이 깊어진 농가들의 걱정을 다양한 판로 개척과 적극적인 대처로 농업소득증대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략분야 인력양성 상호협력체계 구축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전국고용서비스협회 '맞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센터장 전정희)는 18일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을 위한 상호공조적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이에 양 기관은 △직무분석 △재직 근로자의 교육훈련 수요조사 △교육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 등 능력개발지원 △채용예정자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 과정 개발 운영 지원 △그 밖의 체계적인 인적자원개발 지원 등에 약속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센터는 다양한 직무분석을 통한 교육훈련 개발 및 운영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며, 전국고용서비스협회는 전북새일센터에 등록된 재직여성들의 체계적인 인적자원 개발 제고에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는 2016년 공동훈련센터를 설립해 협력업체 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직업상담 분야를 대표하는 공동훈련센터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전정희 센터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인프라를 보유한 전국고용서비스협회의 협약을 통해 고용시장의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양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취업지원팀(063-254-360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은성기자

약용작물 고온 피해 방지... 저온성 필름 개발

잡초 자라지 못하도록 검은 흰색·속은 검은색 형태로 제작 빛 반사율·열 차단 기능 우수... 발두독 온도 억제 장점 갖춰

농촌진흥청은 약용작물의 고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저온성 필름을 개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농진청은 발자물 재배 시 작물 생육을 돕고 잡초를 억제하는 검은색 필름이 여름철 햇빛을 흡수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산업체와 함께 저온성 필름을 개발했다.

폴리에틸렌(PE)으로 만드는 기존 검은색 필름과 달리 저온성 필름은 폴리에틸렌(PE)과 탄산칼슘, 이산화규소 등을 이용한 복합 재질로 만들어졌다. 이 필름은 고온 피해를 막으면서도 잡초가 자라지 못하도록 검은 흰색이 섞인 속은 검은색 형태로 제작됐다. 또 기존 필름보다 공기가 잘 통하고

빛 반사율과 열 차단 기능이 우수하며 수분이 밖으로 증발하게 함으로써 발두독의 높은 온도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장점을 갖췄다.

저온성 필름은 기존 필름보다 여름철 한낮(오후 1~3시 측정)의 두둑 표면 온도를 최대 15°C~30°C, 토양 온도를 최대 7°C~9°C 정도 낮춰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진청은 필름 제조방법을 특허 출원했으며 소재의 경제성과 내구성을 높여 약용작물뿐 아니라 고온에 취약한 원예·식량작물로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관계자는 "농가에서는 최근 좀 더 서늘한 기후를 찾



저온성 필름을 활용해 재배된 약용작물.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아 주산지를 떠나 강원도 산간지대로 옮겨가며 약용작물을 재배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신소재 필름을 활용해 국산 약초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익산원협 산지유통센터서 배 '원황' 캐나다 수출 선적식

익산시는 지난 17일 익산원협산지유통센터에서 올해 첫 수확한 조생종 원황배의 캐나다 수출을 위한 첫 선적식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원황배 14톤 수출을 시작으로 화산·신고배를 캐나다, 대만, 베트남에 연말까지 500톤을 수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로 금야면과 낭산면 일대에서 재배되는 익산배는 72농가 57ha에서 연간 1,700톤 정도 생산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원황', '화산' 등 국내육성 품종을 타 지역에 비해 선도적으로 재배해 수출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올해 배 생육 기상이 양호하고 작황이 좋아 수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신규시장을 개척해 판로를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